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⑭-끝

窮見今時淺識
절견금시천식
唯知立相爲功
유지입상위공
廣費財寶
광비재보
多傷水陸
다상수륙
妄營像塔
망영상탑
虛役人功
허역인공
積木壘泥
적목누니
塗靑畵綵
도청화채
傾心盡力
경심진력
損己迷他
손기타미
未解慙愧
미해참괴
何曾覺悟
하증각오

絕三毒心
절삼독심
永使消亡
영사소무
閉六賊門
폐육적문
不令侵擾
불령침요
恒沙功德
항사공덕
種種莊嚴
종종장엄
無量法門
무량법문
一一成就
일일성취
超凡證聖
초범증성
目擊非遙
목격비요
悟在須臾何煩皓首
오재수유하번호수
眞門幽秘
진문유비

어리석은 이 작은 쾌락 탐하며 닥쳐 올 큰 고통 깨닫지 못하니

요즘 천박한 사람들을 보니, 오직 형상을 세우는 것으로 공덕을 삼아 많은 재물을 허비한다. 물과 육지의 중생을 죽여서 불상과 탑을 세우며, 인력을 허비하여 나무와 진흙을 쌓아 올려 단청을 하기에 온힘을 다 기울이니, 자기도 손해요 남도 어리석게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見有爲則勤勤愛着
견유위즉근근애착
說無相則兀兀如迷
설무상즉올올여미
且貪世上之小樂
차탐세상지소락
不覺當來之大苦
불각당래지대고
此之修學
차지수학
徒自疲勞背正歸邪
도자피로배정귀사
誑言獲福
광언획복
但能攝心內照
단능섭심내조
覺觀常明
각관상명

寧可具陣
영가구진
略說觀心
약설관심
詳其小分
상기소분

유위법(有爲法)을 보면 부지런히 애착을 일으키고 무위법(無爲法)을 말해주면 바보처럼 멍청해진다. 세상의 조그마한 쾌락을 탐하다가 닥쳐올 큰 고통을 깨닫지 못하니 이런 공부는 스스로 피로할 뿐이다. 이는 불법의 바른 이치를 등지고 삿된 길로 가는 것이니, 복을 받는다는 것은 속이는 말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거두고 안을 비추어 항상 밝게 관찰하여 삼독심을 영원히 녹여없애고, 육적의 문을 닫아서 다시는 침범 못하게 하면 한없는 공덕과 갖가지의 장엄과 무량한 법문을 성취할 것이다. 범부를 초월하여 성현의 지위에 오르는 것은 눈깜짝할 사이다. 깨달음은 일순간인데 어찌 번거롭게 머리가 희도록 기다리겠는가. 참된 법문은 깊고 비밀하니 어찌 다 말하겠는가. 이에 간략하나마 관심법에 대해 조금 밝혔을 뿐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덕명스님

부산 안적사 회주

안적사로 덕명 스님을 친견하러 가는 길에는 대상을 구별치 않고 평등하게 내리는 가을 햇살이 바람결 따라 빛을 더하고 있었다. 깊고 깊어 몇 굽이를 돌아왔는지도 모를 길의 끝에서 마주친 안적사는 물속처럼 고요하고, 그곳에는 덕명 스님의 지난 30년이 잠겨 있었다. 신라시대 원효스님에 의해 세워진 이곳 복원하는 일을 수행삼아 매진해 오신 덕명 스님께 물질의 한계를 넘어 마음으로 사는 삶의 지혜를 여쭈었다.

절 마당에 선 3백년 된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거목의 가지와 잎이 물질이라면 그 뿌리는 마음이라고. 마음으로 사는 삶이라야 어떠한 역경에도 부러지지 않는 거목이 될 수 있다고.

"우주의 근본 물질아닌 마음"

· 1926년 울산 生
· 51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 해인사 범어사 강원에서 공부
· 74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 78년 범어사 주지
· 80년 부산불교연합회 창립, 초대회장 역임
· 97년 〈범망경보살계본〉 엮음
·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부산 기장군 안적사에 주석

―현대는 과학과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현대인들은 온갖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지나친 물질 위주의 삶으로 본성을 찾지 못하고 무명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물질에 지나치게 치중한 생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근원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과학자들이 깊은 연구를 하고 학술적으로 밝혀 낸 것들이 오히려 물질로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가고 있어요. 그것은 물질의 작용만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질의 근원이 마음인가 보다고 막연히 추측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벌써 몇 천년 전에 우주의 근본이 마음이라고 설파하셨지요. 그러니 앞으로 과학이든 물질이든 그 근본인 마음을 떠나서는 반쪽에 불과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은 얼마든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의 근원인 마음을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도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자기 자신을 밝혀 알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의 근원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잘 활용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출가, 재가자를 막론하고 또 지식이 많든 적든, 돈이 있든 없든 모든 것에 걸림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부처가 되는 공부입니다. 모두에게 다 평등한 것이죠. 그러니 우선 내가 나의 근원인 마음을 밝히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원은 사람으로 치면 척추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나를 밝혀 기필코 성불하고 말겠다는 서원이 간절해야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 서원을 중심으로 세우고 확고한 신심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면을 향하는 탐구력을 잃지 않아야 자신의 근본인 마음을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욕을 경계하는 철저한 무소유에 있지만 현실 생활은 재가자는 물론 출가스님들마저 물질로 평가 받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절을 가져야만 대접을 받는, 경쟁과 소유욕으로 악착같이 많이 갖고 좋은 걸 갖고 남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물질위주의 생활에 점점 침잠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아상이 더 커지고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물질을 여읜다는 것은 바로 아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상을 버리는 수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출가 스님들만이라도 철저하게 나를 버리는 수행을 통해 물질의 세계를 초월해 대중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물질에 한번 길들여지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큰스님이라 하면 많은 상좌를 거느리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인식들을 해요. 스님들이 돈을 좋아하고 그것을 좇게 되는 이유도 큰스님 대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자연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수행과는 정반대의 양상입니다.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고 지혜를 만들어 물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율을 의지하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또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올바른 수행심을 갖고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십계만 잘 지켜도 그 사람은 수행 잘하는 사람입니다. 계,정,혜 삼학이 있듯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 정이 나오지 않고 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은사이신 동산스님께서는 너무나 철저한 수행자셨기 때문에 스님의 생활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새벽 두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보시고 정진하시고 또 빗자루 들고 도량을 청소하시니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이었지요. 스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참다운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겠다고 여러번 발심을 하곤 했죠. 요즘 초발심을 일으키고 공부를 지어가는 이들도 진정한 수행상을 스스로 정립하기 어려울 때는 앞서가신 역대 조사나 존경하는 선배 스님들을 모델 삼아 자기 스스로를 담금질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닥치는 경계와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병으로 인한 고통, 가난 등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역경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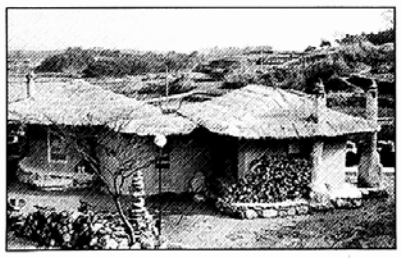
▲30년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10년 불사를 하면서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 병이 났어요. 불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에 내가 마음을 뺏겨서 휘둘리니까 몸에 병이 온단 말입니다. 그 불사를 내가 경영해 나가면 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불사에 내가 말려 들어서 나를 잃어 버렸어요. 나를 잃어 버리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수가 없으니 자연히 몸에 병이 오게 된 것이죠. 그때는 설봉선사, 경산선사, 고암, 무불선사 등 여러 선사들의 기도처였던 이곳을 한번 복원해 보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했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면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불사의 주인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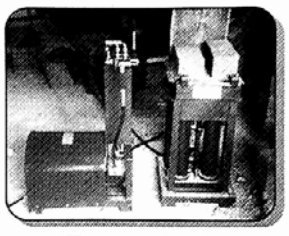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일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온통 자신의 마음을 뺏겨 버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더할 뿐입니다. 태풍이 불면 일년동안 땀흘리며 농사지은 곡식의 수확이 엄청나게 줄어 들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태풍은 자연의 오묘한 원리에 의해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또 태풍이 없다면 여러 가지 생기게 되는 자연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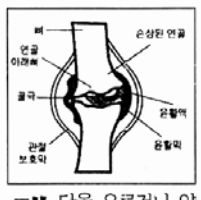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획연한 화제만발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檀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패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 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